

〈研究ノート〉

고령화 사회와 지역복지(2)*

— 한일(韓日)고령자의 「생활안정도」 평가의 있어서에 비교연구 —

히구마 다케요시 · 김 재숙

(日隈健壬) (金在淑)

(접수 2001년 5월 10일)

목 차

I 서론

II 조사목적

III 연구방법

IV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속성
2. 생활안정도 분류와 그 구성비율
3. 생활상황과 항목별 생활안정도의 관련성
4. 분류별 생활안정도 평균과 연령의 상관분석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의 ADL이나 QOL 등을 생활욕구나 스트레스관리, 신체 상황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해, 이 가운데 수면상황, 식욕, 스트레스의 해소 상황, 외출의 불안감, 교통수단, 희망수명, 가정의 역할, 외발서기, 주관적 건강도, 운동실천상황의 10항목을 점수화한 「생활안정도」 스케일에 의거해, 건강발란스 변조의 초기발견과 초기지원, 건강연령(노화도)의 지표로 해서 고찰한다.

*이 조사연구는 히로시마 수도대학 종합연구소 조사연구비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2000년 10월 11일 히로시마 수도대학 종합연구소에 고령화 사회와 지역복지(2)(미야모토 신이찌, 히구마 다케요시)로 접수시킨 한국어 번역판입니다. 이 논문을 번역함에 있어서 강현주씨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Ⅱ 조사의 목적

조사의 주목적은 고령자가 지역에서의 가족관이나 지역관 또는 사회적 책임감 등, 인간으로서 또는 생활자로서 질 높은 라이프스타일을 어떻게 획득할 것 인지를 주안으로 한, 한일양국의 비교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의 의식」에 주목, 평소 살고 있는 지역의 만족도, 생계의 만족도와 같은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비교연구를 함으로써(미야모토(1999) 외) 그 결과, 고령자가 평소부터 나라나 지방자치체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의존하고 있는지, 또는 가족이나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이상을 갖고, 그것이 현실과 어떠한 격차를 갖고 있는지, 그 실태가 부각되었다. 또, 한일의 평균수명이 추적적으로 조차 생각되어지는 타임랙(Time lag)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정한 지표 「생활안정도」 조사를 실시하고, 한일비교조사분석을 행하였다. 고령기가 되면 신체적인 발란스의 편중을 계기로 가속도적으로 잃어가는 생활력 「생활안정도」 저하가 보이지만, 그 요인분석을 통하여 장수와의 관계를 시작으로, 병들거나 노쇠하여 와상 상태의 요인을 초기 발견하여 그 지원방법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의 조사연구에서는, 그 「생활안정도」 지표를 구성하는 갖가지 요소를 어떠한 방법으로 객관성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 라는 분석단계이다. 이 조사연구가 나라나 지방자치체의 재원을 압박하고 있는 고령자복지 지출을 경감시키는 하나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설정하고 있다.

고령자의 생활안정도와 주변환경과의 관련성(지리적환경, 사회적환경)을 더욱 더 조사연구 함으로써 「고령자에게 편한」 가족이나 지역을 포함한 간호환경의 정비를 시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연구과제이다.

고령자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수면이나 식욕, 주관적 건강관 등의 노화를 좌우할 수 있게 되는 환경요인 10항목에서, 한일에 있어서의 고령화 의식과 건강상태를 살펴 「생활안정」 스케일에 기인하여, 노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자립지원에 응한 효과적, 효율적 건강지원의 방법을 생각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일본에서는, 에히메현 우와지미시에서 2000년 5월에 열린 일본 적십자봉사단 총회 참가자(150명 중 65세 이상 110명)과 동 시내의 복지 불란티아 서클을 통하여 질문응답조사(90명)를 실시했다.

한국에서는, 전라남도 영암군청을 통하여 각 부락 집회소(유산각) 8군데에서 65세 이상 219명에게 실시했다. 한일양국이 같은 방법으로 그 장소에서 설명, 기입해 회수한 것이므로 회수율은 어느 쪽도100%이다.

2. 분석방법

- (1) 수면, 영양, 운동, 스트레스, 건강도, 역할, 불안감, 외발서기, 희망수명, 교통수단의 10항목의 회답을 득점화 해서, 「고령화 생활안정도 스케일」을 작성했다. 이 10항목의 합계점을 기준으로 「생활안정도」를 정의한 후, 득점마다 「0~18점」 낮다, 「19~23점」 조금 낮다, 「24~28점」 보통, 「29~33점」 조금 높다, 「34~40점」 높다는 5군(群)으로 분류했다.
- (2) (1)과 같이 10항목을 연령별로 합계, 평균치를 산출, 연령별 항목평균치와 항목별 생활안정도 평균치를 비교함으로써 「항목별건강연령」, 「건강상태」를 간편하게 내면까지 판단할 수 있는 측정법, 척도로서 사용했다.
- (3) (1)에서 작성한 「생활안정도」 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같은 시기에 실시한 조사(일상생활능력, 신체적 건강도, 생활행동, 양식, 사회참가도, 경제적 서포트, 정신적 건강도, 고령자모럴, 보람, 생활만족도, 행복도, 마을 등의 주택환경쾌적도, 가족의 서포트와의 관련을 분석중이다.

Ⅳ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속성

(1) 연령성별

조사 대상자의 연령분포를 5세로 나누어 보면 일본에서는 65세~69세(39.0%)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70세~74세, 75세~84세, 85세 이상이다. 또, 평균연령은 72.3세였다.

표1 고령자 생활상황의 한일비교

	4 점	3 점	2 점	1 점	0 점
1. 수 면	잘 잔다	조금 잘 수 있다	보 통	때때로 잘 수 없다	전혀 잘 수 없다
일 본	77(38.5%)	27(13.5%)	55(27.5%)	38(19.0%)	3(1.5%)
한 국	71(32.4%)	63(28.8%)	56(25.6%)	26(11.9%)	3(1.4%)
2. 식 사	식욕이 있다	약간 식욕이 있다	보 통	때때로 식욕이 없다	전혀 식욕이 없다
일 본	100(50.0%)	27(13.5%)	79(39.5%)	4(2.0%)	0(0.0%)
한 국	26(25.6%)	38(17.4%)	91(41.6%)	32(14.6%)	2(0.9%)
3. 교 통	도 보	자전거, 바이크	버스, 택시, 전차	친척 등의 자가용	외출하지 않음
일 본	62(31.0%)	99(49.5%)	21(10.5%)	14(7.0%)	4(2.0%)
한 국	61(27.8%)	48(21.9%)	92(42.0%)	8(3.7%)	10(4.6%)
4. 수 명	100세 이상	100세까지	90세대	80세대	70세대
일 본	13(6.5%)	16(8.0%)	61(30.5%)	96(48.0%)	14(7.0%)
한 국	23(10.5)	14(6.4%)	70(32.0%)	101(46.1%)	11(5.0%)
5. 외출불안	전혀 불안 하지 않음	그다지 불안 하지 않음	보 통	약간 불안함	매우 불안함
일 본	52(26.0%)	37(18.5%)	83(41.5%)	21(10.5%)	7(3.5%)
한 국	55(25.1%)	36(16.4%)	66(30.1%)	42(19.2%)	20(9.1%)
6. 주관적 건강	매우 건강	약간 건강	보 통	조금불량 (건강하지 못함)	불 량
일 본	34(17.0%)	45(22.5%)	76(38.0%)	36(18.0%)	9(4.5%)
한 국	18(8.2%)	36(16.4%)	61(27.9%)	84(38.4%)	29(9.1%)

7. 운동실천	항상 하고 있다	때때로 하고 있다	보통	별로 하고 있지 않음	전혀 하고 있지 않음
일본	56(28.0%)	66(33.0%)	41(20.5%)	28(14.0%)	9(4.5%)
한국	35(16.0%)	38(17.4%)	50(22.8%)	40(18.3%)	56(25.6%)
8. 스트레스	취미로 해소	외출 전화	TV시청	하지 않는다	그밖에
일본	75(37.5%)	38(19.0%)	60(30.0%)	9(4.5%)	18(9.0%)
한국	21(9.6%)	45(20.5%)	74(33.8%)	66(30.1%)	13(5.9%)
9. 역할	항상 역할이 있다	때때로 역할이 있다	보통	그다지 하고 있지 않는다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일본	105(52.5%)	39(19.5%)	31(15.5%)	16(8.0%)	9(4.5%)
한국	70(32.0%)	37(16.9%)	72(32.9%)	14(6.4%)	26(11.9%)
10. 외발서기	60초까지	30초 이하	20초 이하	10초 이하	5초 이하
일본	85(42.0%)	24(12.0%)	28(14.0%)	35(17.5%)	29(14.5%)
한국	36(16.3%)	29(13.2%)	25(11.4%)	39(17.8%)	90(41.1%)

한국에서는 일본과 같이 65세~69세(37.4%)가 가장 많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서서히 비율이 낮아진다. 평균연령은 71.6%로 일본과 비교해서 약간 낮다.

성별을 보면 일본에서는 남성이30.5%로적고, 한국에서는 남성 53.9%, 여성 46.1%로 거의 동수이다. (표2)

표2 고령자세대의 한일비교

연령	일본			한국		
	인수(%)	남성(%)	여성(%)	인수(%)	남성(%)	여성(%)
65-69세	78(39.0%)	13(6.5%)	65(32.5%)	82(37.4%)	45(20.5%)	37(16.9%)
70-74세	55(27.0%)	18(9.0%)	37(18.5%)	68(31.1%)	42(19.2%)	26(11.9%)
75-79세	39(19.5%)	21(10.5%)	18(0.9%)	48(21.9%)	26(11.9%)	22(10.0%)
80-84세	20(10.0%)	12(6.0%)	8(4.0%)	17(7.8%)	3(1.4%)	14(6.4%)
85세 이상	8(4.0%)	6(3.0%)	2(1.0%)	4(1.8%)	2(0.9%)	2(0.9%)
합계	200(100%)	70(35.0%)	130(65.0%)	219(100%)	118(53.9%)	101(46.1%)
평균연령	72.3세			71.6세		

(2) 가족구성

일본에서는 2인 생활이 48.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독신생활(20.0%), 그리고 3인 생활(11.5%)로 79.5%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2인 생활이 51.1%, 독신생활(21.0%), 3인 생활(14.6%)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86.7%로 한일양국은 독신생활 예비군이 심각화 하고 있다. (표3)

(3) 체형

신장을 보면 일본남성이 156.2cm, 한국남성이 166.8cm로 10.6cm 한국남성의 신장이 크다. 여성은 일본이 149.3cm, 한국이 155.4cm로 6.1cm 한국여성이 크다.

체중에서는 일본남성이 56.4kg, 한국남성이 60.1kg, 일본여성 50.3kg, 한국여성이 52.2kg이다. 체형비는, 남녀 모두 한국이 앞서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신장, 체중치의 측정경험이 적어 다소 정확하지 않다.

표3 한일가족구성비

가족 수	일 본		한 국	
	세대수	%	세대수	%
1인 생활	40	20.0	46	21.0
2인 생활	96	48.0	112	51.1
3인 생활	23	11.5	32	14.6
4인 생활	16	8.0	3	1.4
5인 생활	6	3.0	1	0.5
6인 생활	19	9.5	2	0.9
불 명	0	0.0	23	10.5
합 계	200	100.0	219	100.0
평균가족수	2.62인		2.02인	

2. 생활안정도 분류와 그 구성비율

(1) 생활안정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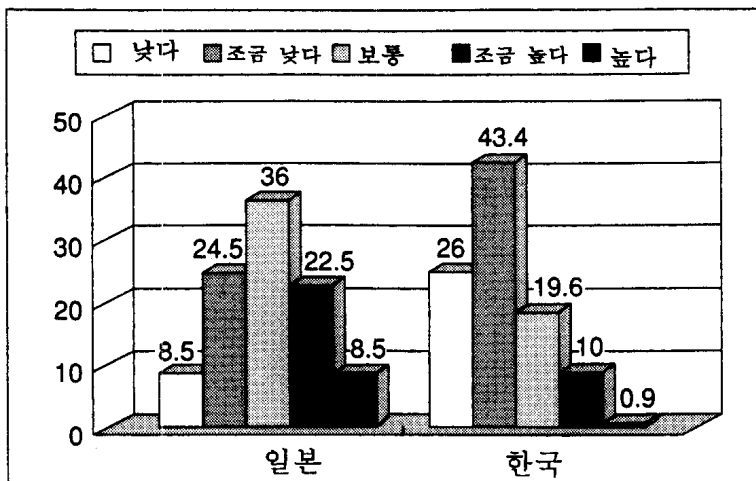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의 생활안정도 분포(표4)는 수면, 영양, 운동, 스트레스, 건강도, 역할, 불안감, 외발서기, 희망수명, 교통수단의 각 항목의 회답을 「0점~4점」까지 득점화 하고, 10항목의 합계점을 기준으로 「생활안정도」로 정의한 것이다. 그 위에, 득점마다 「0점~18점」 낮다, 「19~23점」 조금 낮다, 「24~28점」 보통, 「29~33점」 조금 높다, 「34~40점」 높다는 5군으로 분류, 분류별 평균치를 산출했다. (표4)

표4 한일생활안정도별 항목 평균치 비교

일본	수면	식사	교통수단	희망수명	불안감	건강상태	운동실천	스트레스	역할	외발서기	특점평균	합계인수
0-18	1.88	2.18	2.41	1.47	1.59	0.71	1.35	2.24	1.41	0.47	15.71	17
19-23	2.39	2.53	2.80	1.35	2.16	1.78	2.24	2.20	2.53	1.86	21.84	49
24-28	2.39	2.88	3.07	1.46	2.54	2.32	2.64	2.72	3.33	2.78	26.13	72
29-33	3.42	3.71	3.22	1.71	2.89	2.89	3.24	3.09	3.64	3.11	30.93	45
34 이상	3.76	3.88	3.35	2.65	3.53	3.71	3.71	3.65	3.71	3.53	35.47	17
합계평균	2.70	3.01	3.01	1.59	2.53	2.30	2.72	2.72	3.08	2.50	26.07	200

한국	수면	식사	교통수단	희망수명	불안감	건강상태	운동실천	스트레스	역할	외발서기	특점평균	합계인수
0-18	2.09	1.77	2.00	1.56	1.60	1.33	0.95	1.49	1.68	0.39	14.86	57
19-23	2.76	2.51	2.73	1.71	2.12	1.47	1.68	1.96	2.51	1.62	21.05	95
24-28	3.21	2.98	3.14	1.63	2.95	2.16	2.35	2.30	3.00	2.02	25.74	43
29-33	3.82	3.50	3.05	2.09	3.41	3.14	3.09	2.50	3.59	2.41	30.59	22
34 이상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3.50	2.00	37.50	2
합계평균	2.79	2.38	2.66	1.71	2.29	1.76	1.79	1.98	2.51	1.46	21.47	219

일본의 경우는 「생활안정도」가 「보통」(36.0%)를 중심으로 「조금 낮다」(25.5%), 「조금 높다」(22.5%), 「낮다」(8.5%), 「높다」(8.5%)로 고저 발란스가 잡혀져 있어 생활 안정도 지수는 26.7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조금 낮다」(43.4%)가 가장 높고 「낮다」(26%), 보통(19.6%)로 약간 일본에 비해 생활안정도 지수는 낮은 21.47점이였다.



그래프 1 일한 생활안정도 구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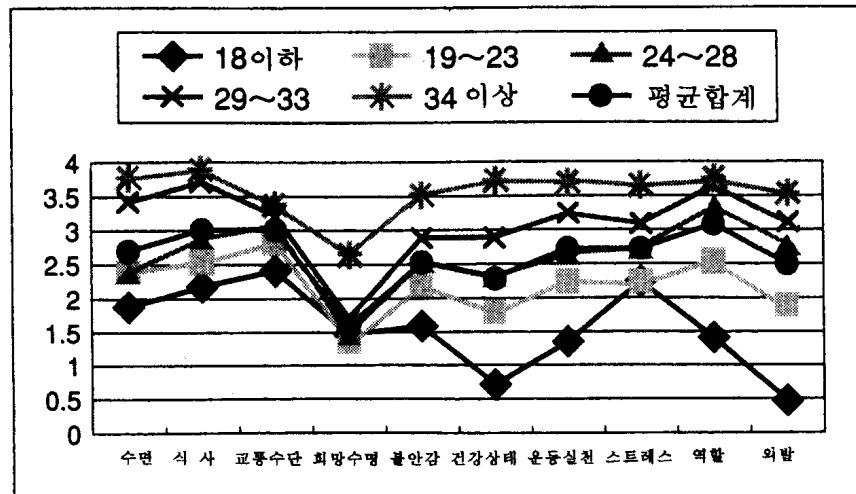
(2) 생활안정도별 항목별 분포

표4의 한일 생활안정도별 항목 평균치의 「높다」군 「낮다」군의 고저차가 큰 항목은, 일본에서 「외발서기」(3.06포인트)가 가장 크고, 뒤이어 「운동의 실천」(3.00포인트)로 되어 있다. 그것에 비해 고저차가 적은 항목은, 일본에서는 「교통수단」(0.94포인트), 「주관적 건강상태」(1.41포인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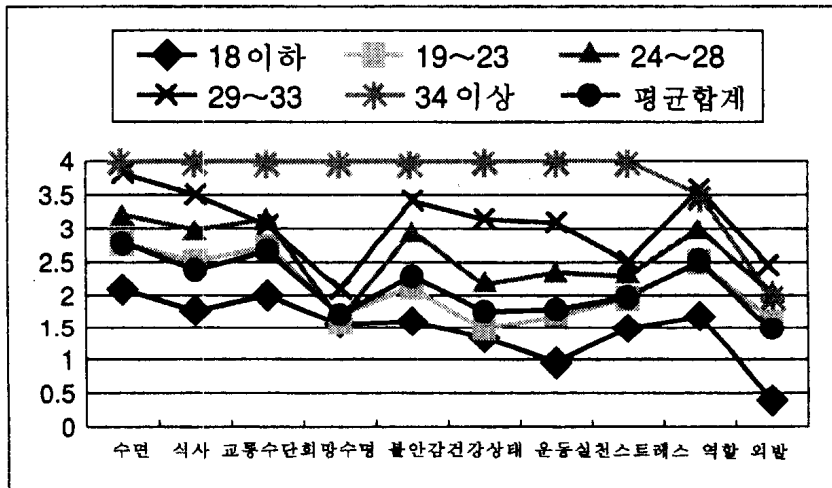
한국에서 고저차가 큰 항목은 「운동의 실천」(3.05포인트), 뒤이어 「주관적 건강」(2.67포인트)으로 또, 고저차가 적은 항목은 「역할」(1.82포인트), 「수면」(1.91포인트)였다.

이것으로 일본에 있어서는 평형감각이 유지되어 운동이 실천되고 있다는 것, 한국에 있어서는 운동을 실천과 건강자각이 있는 것이 생활안정도를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생각되어진다.

또, 「수면」, 「희망수명」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의 생활안정도 평균득점계수에서 한국이 일본을 상회하고 있다.



그래프 2 일본 안정도별 항목 평균치 비교



그래프 3 한국 안정도별 항목 평균치 비교

(3) 생활안정도 연령별 분포

표5 한일 연령별 항목 평균치 비교표는 각 연령별로 분류한 것에 인원수 평균치를 낸 것이다. 연령별 생활안정도 평균치는 일본의 경우 「65세~69세」(2.68점), 「70세~74세」(2.57점), 「75세~79세」(2.67점), 「80세~84세」(2.46점), 「85세 이상」(2.15점)으로 나이를 더함에 비례하여 저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5세~69세」(2.27점)부터 「70세~74세」(2.19점), 「75세~79세」(2.00점), 「80세~84세」(1.88점), 「85세 이상」(1.75점) 순으로 나이를 더함에 비례하여 안정도는 저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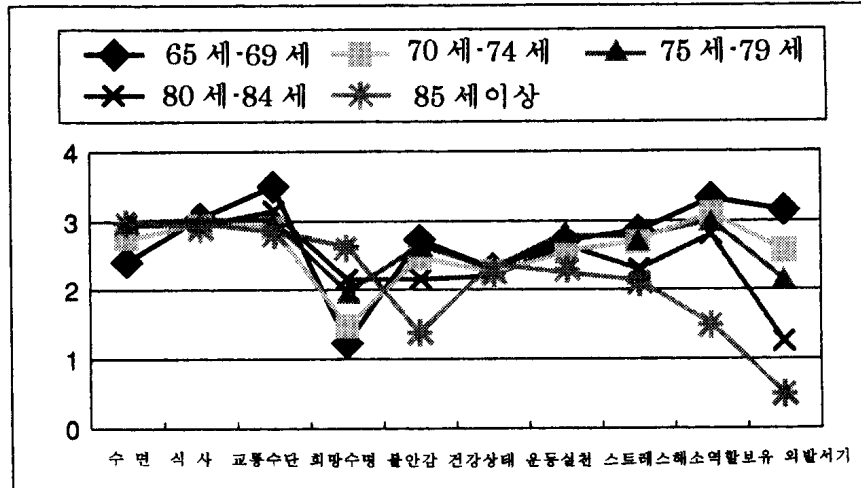
또, 연령별 생활안정도의 「높다」군 「낮다」군의 고저차가 큰 항목은, 일본에서는 「외발서기」(2.65포인트)가 가장 크고, 뒤이어 「역할보유」(1.82포인트)로 되어 있다. 그것에 비해 고저차가 적은 항목은, 일본에서는 「식사」(0.005포인트), 「주관적 건강상태」(0.07포인트)이다.

표5 한일 연령별 항목 평균치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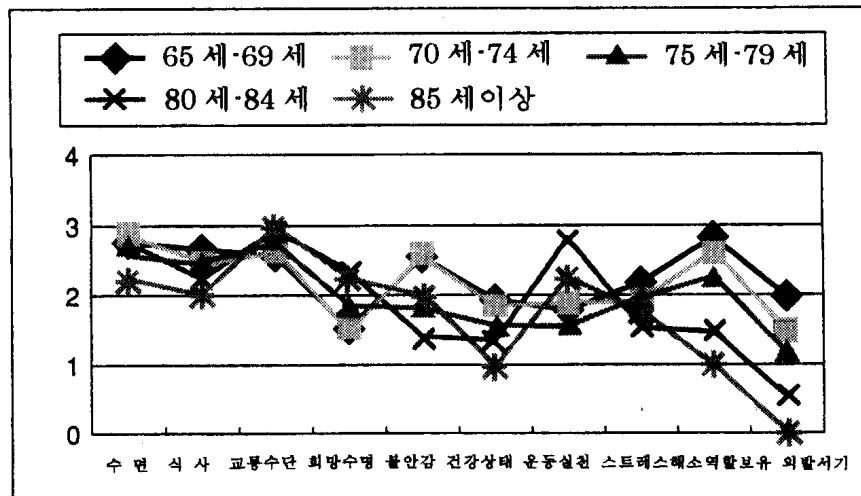
일본	수면	식사	교통수단	희망수명	불안감	건강상태	운동실천	스트레스해소	역할보유	외발서기	안정도 평균	합계인수
65-69세	2.41	3.05	3.50	1.23	2.73	2.31	2.72	2.86	3.32	3.15	2.68	78(39.0%)
70-74세	2.75	2.95	2.91	1.47	2.47	2.27	2.55	2.71	3.11	2.56	2.57	55(27.5%)
75-79세	3.00	3.03	3.03	1.97	2.64	2.33	2.79	2.77	3.00	2.15	2.67	39(19.5%)

80-85세	2.95	2.95	3.15	2.15	2.15	2.20	2.65	2.30	2.80	1.25	2.46	20(10.0%)
85세 이상	3.00	3.00	2.88	2.63	1.38	2.38	2.25	2.13	1.50	0.50	2.15	8(4.0%)
평균치	2.70	3.01	3.01	1.59	2.53	2.30	2.66	2.72	3.08	2.50	2.61	20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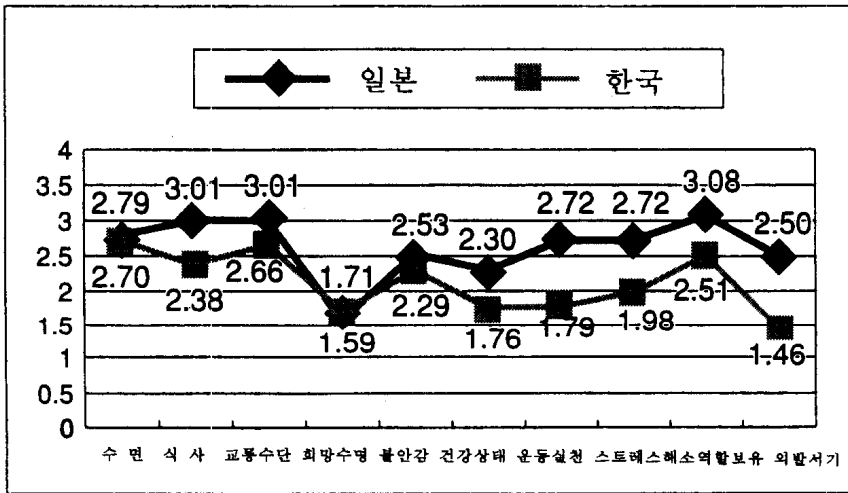
일본	수면	식사	교통 수단	희망 수명	불안감	건강 상태	운동 실천	스트레스 해소	역할 보유	외발 서기	안정도 평균	합계인수
65-69세	2.76	2.66	2.57	1.52	2.55	1.93	1.78	2.18	2.83	1.98	2.27	82(37.4%)
70-74세	2.84	2.50	2.62	1.35	2.56	1.85	1.88	1.91	2.63	1.49	2.19	68(31.1%)
75-79세	2.58	2.45	2.75	1.85	1.81	1.56	1.56	1.96	2.27	1.16	2	48(21.9%)
80-84세	2.76	2.24	2.94	2.35	1.41	1.35	2.82	1.53	1.47	0.53	1.88	17(7.8%)
85세 이상	2.25	2.00	3.00	2.25	2.00	1.00	2.25	1.75	1.00	0.00	1.75	4(1.4%)
평균치	2.74	2.52	2.66	1.62	2.29	1.76	1.85	1.99	2.51	1.50	2.15	21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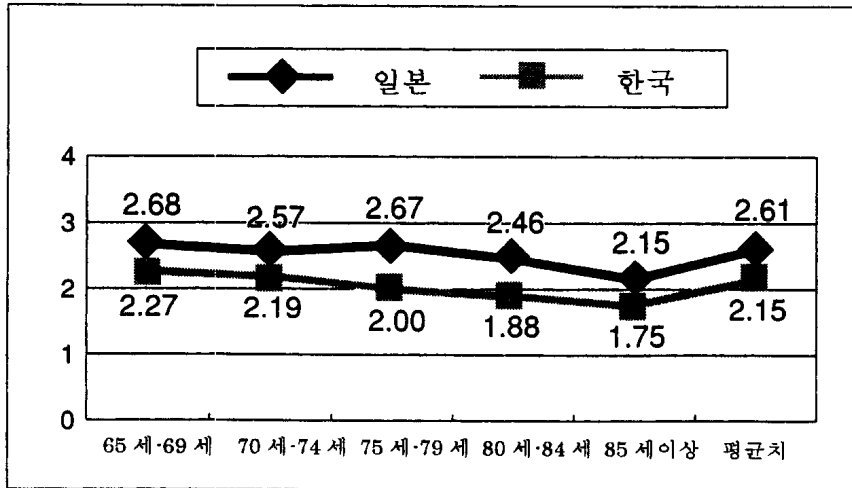
그래프 4 일본 연령별 항목 평균치 비교



그래프 5 한국 연령별 항목 평균치 비교



그래프 6 일한 항목별 평균치 비교



그래프 7 일한 연령별 생활안정도 평균비교

한편 한국에서 고저차가 큰 항목은, 일본과 마찬가지로「외발서기」(1.98포인트), 뒤이어 「역할보유」(1.83포인트)로 되어 있고, 고저차가 적은 항목은 동물로 「스트레스 해소」, 「교통수단」(0.43포인트)이었다.

한일 양국 모두가 「외발서기」와 「역할보유」가 나이를 더함으로써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으로도 주목할 수 있는 「식욕」, 「주관적 건강」같은 정신면과 육체면의 밸런스를 요하는 플러스 항목에 있어서 격차가 없는 일본과 「스트레스」, 「교통수단」 같은 마이너스 항목, 환경면에서의 격차간이 「고령자에게 편한 환경」이지 않을까 라고 여겨진다.

있따라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은, 일본의 연령별 안정도 평균 「85세 이상」(2.15점)과 한국 전체의 안정도 평균치(2.15점)와 동일하며, 한국의 같은 수준의 연대층은 「75세~79세」(2.00점)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생활 안정도 수준은 5년~10년 전후의 격차가 있으며, 한일의 평균수명의 차이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5)

3. 생활환경과 항목별 생활안정도의 관련성

(1) 수면상황

일본에서는 「잘 잔다」(38.5%), 「조금 잘 수 있다」(13.5%)의 수면양호군(52.0%), 「때때로 잘 수 없다」(19.0%), 「전혀 잘 수 없다」(1.5%)의 불면군(20.0%)로 되어 있다. 이것은 1997년 후생(厚生)백서 통계결과(건강관리에 관한 의식조사)의 「수면이 불충분하다」(23.1%)와 비교하면 약간 낮다. 한국에서는 「잘 잔다」(32.4%), 「약간 잘 수 있다」(28.8%)로 높고, 「때때로 잘 수 없다」(11.9%), 「전혀 잘 수 없다」(1.4%)로 일본에 비해 수면상태는 양호하다.

연령별에서 연령마다 「잘 잔다」, 「때때로 잘 수 없다」가 연령에 비례해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생활안정도에서 본 경우, 일본의 안정도가 「낮다」는 불면군 「때때로 잘 수 없다, 전혀 잘 수 없다」는 40.9%에 달하며, 「약간 높다」, 「높다」에서는 0.0%로 불면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다.

한편 한국의 경우 「낮다」는 30.5%로 일본에 비해 10.4% 낮고, 불면군이 보통(1.3%)로 거의(0.0%)에 달하며 「약간 높다」, 「높다」에서는 0.0%였다. 이 결과에서 본 경우, 수면은 연령보다 생활안정도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2) 식욕의 상황

일본에서는 「식욕이 있다」(50.0%), 「약간 식욕이 있다」(13.7%)로 높고, 한국에서는 「식욕이 있다」(25.6%), 「약간 식욕이 있다」(17.4%)로 일본에 비해 식욕이 낮다.

연령별로는, 일본의 식욕왕성군(식욕이 있다, 약간 식욕이 있다)는 「65-69세」(57.7%), 「70~74세」(54.5%), 「75~79세」(56.0%), 「80세 이상」(62.5%)로 연령과 같이 다소(多少)이지만 수치를 올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식욕왕성군(식욕이 있다, 약간 식욕이 있다)는 「65~69세」(48.8%), 「70~74세」(45.6%), 「75~79세」(35.4%), 「80~84세」(29.4%), 「80세 이상」(25.0%)로 연령에 비해 서서히 식욕이 저하하고 있다. 이번의 조사에서 식욕과 잔존치수(齒數)의 관계를 시사할 수 없지만, 한국의 설문조사에서 치아의 치료를 하지 않는 고령자가 이외로 많았다. 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고령자를 위한 식품을 불정비하고 있는 스토어(store)는 없다는 회답이었다. 이러한 환경요인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생활안정도로 본 일본의 경우, 안정도가 「낮다」군에 있어서 식욕이 「보통」(58.8%), 「약간 높다」군에서 「보통」(67.3%)로 안정도가 낮은 편에 있어도 식욕이 감퇴하는 비율은 낮다.

한국에서는 안정도 「낮다」군의 식욕이 「보통」(54.4%), 「약간 낮다」군의 「보통」(47.4%)로 일본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었다. 그 이유로는 「낮다」군의 「때때로 식욕이 없다」(33.3%), 「약간 낮다」군의 「때때로 식욕이 없다」(10.5%)가 일본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결과로 추측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서는 지역에 있어서 고령자의 영양요법과 조리법 고안, 서비스 제공이 더욱 더 개선되어 긴밀한 서비스가 된다면 일본과 다름없이 연령에 의한 식욕의 저하는 개선되고, 안정도를 유지하기 위한 식사요법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교통수단의 상황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교통수단을 일본의 경우로 본 경우 「자전거, 바이크, 자동차」(49.5%)로 높고,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 있을 것, 자기의 의지로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이다. 그러나 「버스, 택시, 전차」(10.5%)로 대중기관의 사용률이 적고 자가용 보급률이 높은 일본에 있어서 고령자에게 편한 이동수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버스, 택시, 전차」(42.0%)의 이용도가 가장 높고, 경제면과

고령자 자신의 운동능력의 양면으로 비교할 필요성을 느낀다. 또 한국에서는 「친척등의 자가용」(3.7%)로 일본에 비해 낮다. 이유로는 친척이나 가족의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한다는 고령자의 회답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과 가까이에 고령자의 가족이 적다는 것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별로는, 일본은 「65~69세」는 자전거, 바이크, 자가용의 비율이 높고, 「75~79세」에 걸쳐 「도보」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연령과 같이 「도보」의 비율은 높아지고 자전거, 바이크, 자가용의 비율이 저하 경향에 있다.

생활안정도별에서는 일본의 경우, 안정도의 고저차에 의한 비율격차가 가장 적고, 도보나 자전거, 바이크의 이용에 대해서는 격차가 적다. 그러나 버스, 택시, 전차 등의 공공수단의 이용도에 대해서는 「적다」(23.5%), 「약간 적다」(16.3%), 「보통」(9.7%), 「약간 높다」(4.4%), 「높다」(0.0%)로 안정도가 높은 수준에 있을 경우, 자가용의 이용이 높고, 안정도가 낮아지면 공공의 교통수단으로 이행(移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안정도가 「높다」는 「도보」(100.0%)였다. 또, 「도보」, 「자전거, 바이크」군의 합계로 본 경우, 「약간 높다」(81.8%), 「보통」(79.1%), 「약간 낮다」(51.6%), 「낮다」(21.0%)로 격차가 보였다.

이 결과를 근거로 고령자의 안정도가 낮아지기 시작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시작하는 고령자에게 있어서 버스, 택시, 전차 등을 한층 더 「고령자에게 편한」 교통기관으로 지향할 필요성을 느끼는 바이다.

(4) 희망수명

일본의 희망수명은 「80세대」(48.0%)가 가장 많고, 뒤이어 「90세대」(30.5%), 「100세까지」(8.0%), 「100세 이상」(6.5%), 「70세대」(7.0%)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80세대」(46.1%)가 가장 많고, 「90세대」(32.0%), 「100세 이상」(10.5%), 「100세까지」(6.4%), 「70세대」(5.0%)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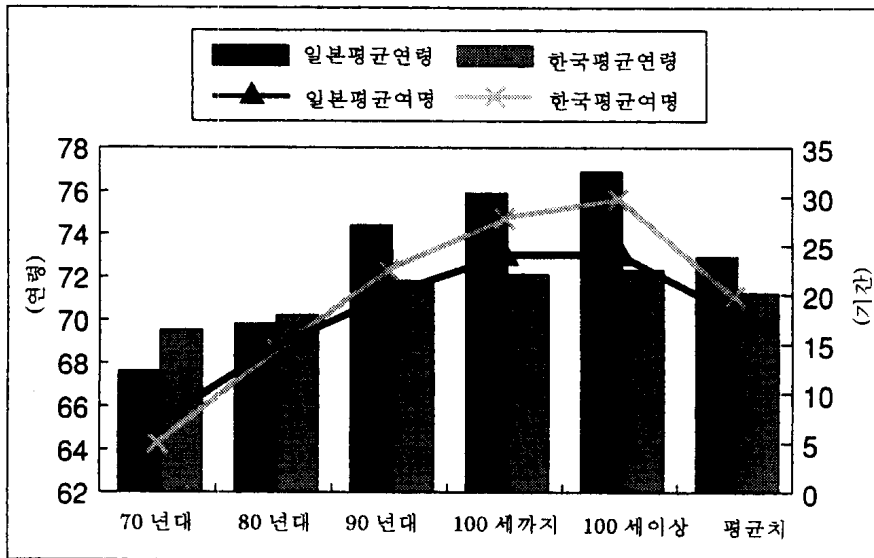
연령별에서는, 실제연령이 희망수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각 연대층의 구성비가 높은 것에 주목해 보았다. 일본의 연령별 구성비 「65~69세」에서 가장 높은 것은 「80세대」(60.3%), 「70~74세」는 「80세대」(52.7%), 「90세대」(32.7%)로

이행하기 시작, 「75~79세」에서는 80세대(38.5%), 「90세대」(35.9%)이며, 「80~84세」에서 「90세대」(60.0%)로 이행하고 「85세이상」에서는 90세에서 100세로 희망수명이 이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65~69세」층은 「80세대」(56.1%), 「70~74」세는 「80세대」(54.4%), 「75~79세」에서는 80세대(37.5%), 「90세대」(43.8%) 이분하고, 「80~84세」에서 「90세대」(82.4%)로 이행하고 「85세이상」에서는 「90세대」(75.0%), 「100세까지」(25.0%)이었다.

이 결과에 한해 일본 및 한국의 희망수명에서 실제수명을 제한 평균 여명(余命)년수는 일본의 경우18.0세, 한국에서의 평균은 19.9세였다. (표6)

생활안정도에서 본 일본의 경우, 안정도가 「낮다」군을 제해, 「80세대」까지의



그래프 8 일한 희망수명분류별 평균과 여명년수비교

표6 한일 희망수명 분류별 평균과 여명년수 비교차

	일본 평균 희망년수	한국 평균 희망년수	일본 평균 희망여명	한국 평균 희망여명
70세대	67.6	69.5	6.9	5.0
80세대	69.8	70.2	14.7	14.3
90세대	74.4	71.8	20.1	22.7
100세까지	75.9	72.1	24.1	27.9
100세이상	76.9	72.3	24.1	29.8
평균치	72.9	71.2	18.0	19.9

희망수명은 「약간적다」(69.4%), 「보통」(58.4%), 「약간높다」(48.9%), 「높다」(23.5%)로 상관성이 보인다. 그리고 「낮다」군은 연령의 영향이 가장 강한 것으로 「80세대」, 「90세대」를 희망수명으로 회답한 고령자의 평균수명을 구한 결과는, 「80세대」가 77세, 「90세대」가 78세였다. 이것으로 77세부터 78세가 희망수명을 90세대로 인식하는 분기점라고 생각된다.

한국의 경우, 「100세 이상」으로 회답한 군은, 안정도가 「높다」(100%), 「약간높다」(27.3%), 「보통」(11.0%), 「약간 적다」(9.3%), 「낮다」(1.8%)였다. 또 「낮다」군의 「80세대」를 희망수명으로 한 평균수명은 78.2세로 일본과 비교해서, 「80세대」로 5.9세 일본의 연령이 높고, 「90세대」로 한국이 1.2세 상회했다.

이것으로 추측과 안정도가 「낮다」군의 상황에서도 한국 고령자의식의 여명수명의 희망연수는 일본에 비해 길다는 것을 알수있다.

(5) 외출시의 불안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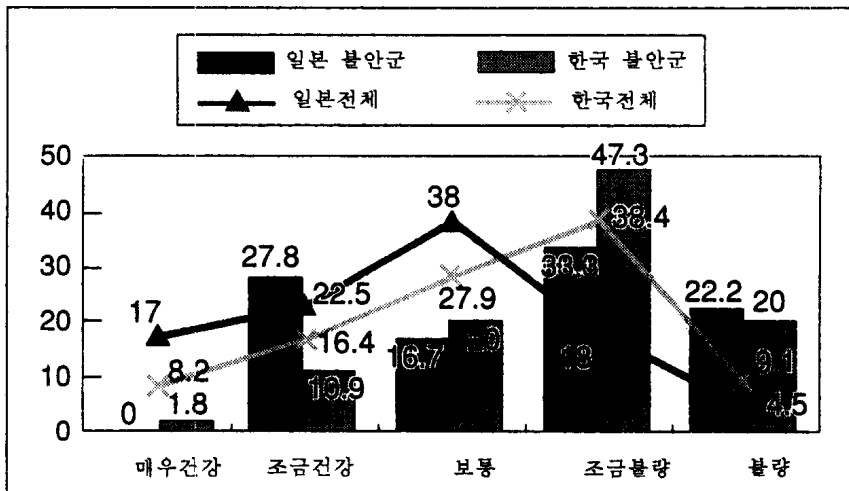
단순집계에서 본 일본에서는, 「전혀 불안감 없음」(26.0%), 「그다지 불안하지 않음」(18.5%), 「보통」(41.5%), 「약간 불안함」(10.5%), 「매우 불안함」(3.5%)로 나타났다. 한국은 「전혀 불안감 없음」(25.1%), 「그다지 불안하지 않음」(16.4%), 「보통」(30.1%), 「약간 불안함」(19.2%), 「매우 불안함」(9.1%)로 불안함을 느끼는 군을 비교한 경우, 일본(14.0%)에 대해 한국은(28.3%)로 약 2배로 나타났다. 일본은 1989년 이후 주택개조나 환경정비에 있어서 배리어프리를 활발히 제창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국 영암읍의 경우에는 취약주변의 보도정비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영암군 영암읍의 복지과 담당에 의하면 총인구 10,937인 중, 재택 고령자 휠체어 사용자수는 겨우 2건이었다.

연령별로는, 일본의 외출불안군 「전혀 불안하지 않다, 그다지 불안하지 않다」(44.5%)의 연령 구성비는 「65~69세」(56.5%)로 가장 높고 「75~79세」(46.1%), 「70~74세」(38.2%), 「85세이상」(0.0%)로 거의 연령에 비례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외출불안군(16.9%)의 연령별 구성비는 「70~74세」(52.9%)로 가장 높고, 「85세이상」(50.0%), 「65~69세」(47.6%), 「75~79세」(25.0%), 「80~84세」(11.8%)로 흩어짐이 있지만, 「전혀 불안하지 않다」에서 본 경우는 연령과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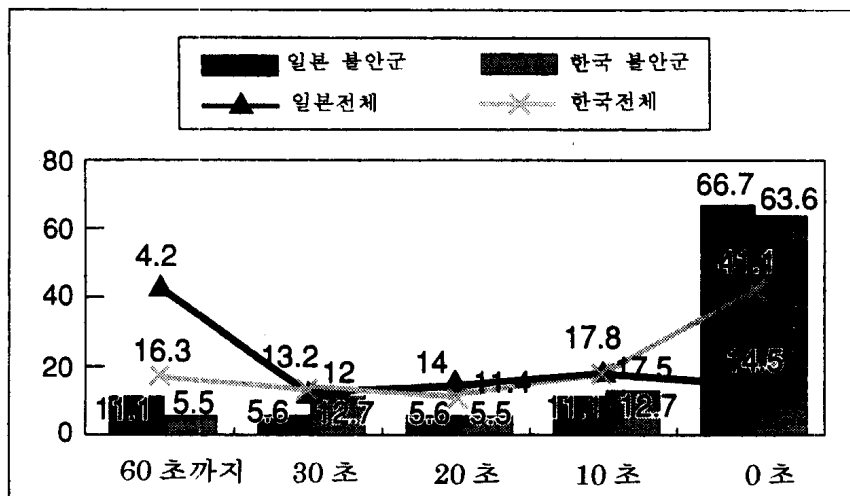
시에 감소하고 있다.

생활안정도에서 본 일본의 경우, 외출불안군 「조금 불안」, 「불안」을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31.1%)가 가장 높고, 뒤이어 「조금 낮다」(22.5%), 「보통」(9.8%), 「조금 높다」(6.7%) 「높다」(0.0%)로 안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불안군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출불안군은 「낮다」(50.9%), 「조금 낮다」(53.7%)로 반수가 외출시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또 「보통」(11.0%), 「조금 높다」(9.1%), 「높다」(0.0%)로 안정도가 저하경향에 있는 「낮다」, 「조금 낮다」에서 한일의 격차가 있다.



그래프 9 일한 외출불안군의 주관적 건강관리구성비율



그래프 10 일한 외출불안군의 외발서기의 구성비율

이 외출불안군에 있어서 안정도 저하경향군 「주관적 건강, 외발서기」만을 추출분석한 결과, 「주관적 건강」에서는 「매우 건강」이 「전체」(8.2%)에 대해서(1.8%), 「약간 건강」(15.4%)이 (10.9%), 「보통」(27.9%)이 (20.0%), 「약간 불량」(38.4%)이 (47.3%), 「불량」(9.1%)과 건강상태 「불량, 「약간 불량」(20.0%)이 증가경향에 있고, 외발서기에 있어서는 일본의 경우 「60초, 「0초」의 격차가 커, 외출시의 불안과 외발서기의 관련에 대해서는 「높다」와 「낮다」로 나타났다.

(6) 주관적 건강도

일본에서는 「매우 건강」(17.0%), 「약간 건강」(22.5%), 「보통」(38.0%)과 주관적 건강도는 높고, 「조금 불량」(18.0%), 「불량」(4.5%)의 컨디션불량군은 22.5%에 머물고 있다.

한국에서는 「약간 불량」(38.4%), 「불량」(9.1%)의 비율이 높고, (47.5%)가 컨디션불량군이다. 컨디션 불량요소로써 조사중 시각장애(녹내장), 치과치료 부족에 의한 식물성취장애를 호소하는 고령자가 눈에 띄었다.

연령별로는, 일본의 경우 「매우 건강, 「약간 건강」의 단순집계 건강도군(39.5%)의 구성비율은 「65~69세」(37.2%), 「70~74세」(40.0%), 「75~79세」(38.4%), 「80~84세」(40.0%), 「85세 이상」(37.5%)로 연령에서 주관적 건강도가 비례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 있어서는 단순집계의 건강군(24.7%)의 구성비율은 「65~69세」(29.2%), 「70~74세」(25.0%), 「75~79세」(20.9%), 「80~84세」(17.7%), 「85세 이상」(0.0%)로 일본과 다르게 연령에 비례해서 주관적 건강도는 저하했다.

생활안정도별로 본 일본의 주관적 건강도 비교에서는, 「매우 건강, 「약간 건강」의 건강군에서 「높다」(94.2%), 「약간 높다」(64.4%), 「보통」(36.1%), 「조금 낮다」(16.3%), 「낮다」(0.0%)로 안정도가 증가 할 때마다 건강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낮다」군의 「건강불량」(41.2%)가 한국과 비교해 높게 되어 있다.

한국의 주관적 건강도의 특징은, 「높다」(100.0%), 「약간 높다」(77.3%)로 건강군의 비율은 높게 되어 있으나, 안정도가 「보통」이 되면(22.6%), 「약간 낮다」

(23.6%), 「낮다」(1.8%)로 「매우 건강」군 계수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7) 운동실천의 상황

일본에서는, 운동실천을 「항상 하고 있다」(28.0%), 「때때로 하고 있다」(33.0%)라고 회답한 사람(61.0%)은 게트볼이나 산책, 워킹 등의 스포츠, 레크레이션을 실천하고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서 운동실천율은 34.4%로 낮다. 이유로는, 일본과 비교해 기계화에 의한 생산성향상, 노동시간, 육체노동의 단축 등의 격차는 적으나, 의식면에서 아직 노동지상주의적 가치관이 침투해 있는 것으로 여기어진다.

연령별에서는 「항상 하고 있다」가 가장 많은 연령은 「85세 이상」(37.5%), 「때때로 하고 있다」가 「65~69세」(39.7%), 「보통」이 「70~74세」(25.5%), 「별로 하고 있지 않다」가 「85세 이상」(37.5%),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85세 이상」(12.5%)로 되어 있다. 85세 이상의 경우, 실천파와 비실천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한국의 경우, 「80~84세」가 「항상 하고 있다」(23.5%), 「때때로 하고 있다」(29.4%), 「보통」(29.4%)로 가장 높고, 비실천군인 「그다지 하고 있지 않다」가 「65~69세」(26.8%),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75~79세」(39.6%)로 되어 있다. 일본의 「75~79세」의 「전혀 하고 있지 않다」(5.1%)와 비교한 경우는, 34.1%의 격차가 보였다.

생활안정도별로 본 경우, 일본은 안정도가 「낮다」군에서도 「항상 하고 있다」, 「때때로 하고 있다」 합계의 운동실천군(17.7%)으로 운동실천도는 높다.

한편 한국에서는 운동군의 「낮다」(14.0%), 「약간 낮다」(14.8%)로 일본과 비교해 실천도는 낮다. 또 「낮다」의 「전혀 하지 않는다」군만 비교했을 경우는 일본(23.5%)에 비해 한국(47.4%)로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다.

(8) 스트레스 해소 상황

일본에서는 「취미로 해소한다」(37.5%)가 가장 높고, 뒤이어 「TV를 본다」(30.0%)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취미로 해소한다」(9.6%)로 낮고, 「아무것도 안 한다」(30.1%)가 일본의(4.5%)와 비교해 가장 높다. 스트레스 영향, 소화, 극복

하는 방법에는 개인차, 민족차는 있으나, 한국에 있어서 여가, 취미를 즐기는 등의 가치관을 찾아내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의식수준은 현시점의 고령자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미로 해소하는 군 76명의 주관적 건강도, 수면상황에 유의차는 볼 수 없었다.

연령별로는, 일본의 경우 「취미로 해소한다」가 가장 높은 연령은 「75~79세」(43.6%) 뒤이어 「외출, 전화」로 해소하는 군은 「70~74세」(23.1%)가 높다. 「TV로 해소한다」에서는 「70~74세」(32.8%),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군에서는 「85세 이상」(12.5%)로 되어 있다. 이 결과로 추측하면 「65~69세대」의 고령자층은 현역세대가 많고, 취미의 몰두성이 낮은 것으로 여기어 진다.

한편, 한국에서는 「취미로 해결한다」가 가장 높은 연령은 「75~79세」(11.8%), 「외출, 전화로 해소」가 「80~84세」(29.0%), 「TV로 해소한다」가 「85세이상」(50.0%),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가 「75~79세」(41.7%)로 되어 있다.

단순집계 결과로는 「TV를 본다」는 일본(33.0%), 한국(30.0%)로 동수준의 스트레스 해소법의 하나로써 자리잡고 있으나, 생활안정도로 본 일본의 경우, 「낮다」의 「TV를 본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52.9%로 독립성이 높다. 또 안정도가 「약간 낮다」(42.9%), 「보통」(30.6%)로 내려감에 따라 TV의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TV를 보고 해소한다」고 회답한 안정도군은 「보통」(58.1%)이 가장 높다. 그리고 「약간 낮다」(32.6%), 「낮다」(22.8%), 「약간 높다」(22.7%) 순이었다. 또 한국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낮다」군에(61.4%), 「약간 낮다」(26.3%)로 내향적 지향이 일본과 비교해서 높다.

(9) 사회, 가정에서의 역할보유의 상황

일본에서는 「항상 역할이 있다」(52.5%), 「때때로 역할이 있다」(19.5%)로 가정에서의 역할보유율이 높다. 한편 한국에서는 「항상 역할이 있다」(32.0%), 「때때로 역할이 있다」(16.9%)로 약 반수에 머물러 있다. 또 역할보유율과 가족수에는 유의차는 보이지 않는다.

연령별로는 「항상 역할이 있다」, 「때때로 역할이 있다」를 합쳐 손실 경향을 본

경우, 일본의 경우는 「65~69세」(79.5%)에서 「80~85세」(60.0%)까지 비교적 온화한 감소경향을 나타내 「80세이상」에서 12.5%까지 급격히 저하하고 있다. 한국은 전체 역할보유율은 일본과 비교해 낮다. 그러나 「65~69세」(56.1%), 「75~79세」(45.8%)에 있어서는 일본과 다름없이 온화한 감소경향을 나타내 「80~84세」(5.9%), 「85세이상」(0.0%)였다. 이것으로부터 역할보유율을 연령에서 평가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5년 빨리 역할상실분기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역할보유율을 단순집계로 본 경우 「항상 하고 있다」, 「때때로 하고 있다」의 역할보유군은 72%로 높다, 생활안정도별로 본 일본의 경우, 안정도가 「낮다」의 역할보유 구성은 「그다지 하고 있지 않다」「전혀 하고 있지 않다」의 비역할보유군은(58.8%)로 역할이 없는 고령자가 많고, 뒤이어 「약간 낮다」(24.5%)군에 있어서도 높은 비율이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역할보유전체(44.0%)는 일본에 비해 낮지만, 안정도 「낮다」의 역할보유에 대해서는 비역할보유군(27.2%)로 일본의 반정도였다. 이것으로부터 일본에서는 생활안정도가 「약간 낮다」의 수준에 접어들면 한국에 비해 의존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외발서기 지지상황

눈을 뜬채로 외발서기 지지시간을 측정했다. 일본에서는 「60초이상」(42.0%)가 가장 높고, 한국에서는 「5초 이하」(41.1%)가 가장 높다. 또 「0~10초」에서 본 경우, 일본은 32%인데 비해서 한국은 58.9%로 평행감각의 저하가 눈에 띄었다. 연령별에서는 일본의 경우 「60초 이상」의 구성비는 「65~69세」(64.1%)가 가장 높고 그후 연령과 함께 저하해 「85세 이상」에서는 (0.0%)였다. 한국에서는 「60초이상」의 비율은 전체평균(16.3%)로 낮고, 「65~69세」의 구성비율과 일본의 「75~79세」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한일 외발서기 지지시간을 비교하면, 평행감각에 10세정도의 격차가 보인다.

생활안정도로 본 일본의 경우, 평가가 낮은 편에 있는 「5초 이내」의 것은 안정도가 「높다」(6.9%), 「약간 높다」(6.7%), 「보통」(8.3%)로 낮으나, 「약간 낮다」(22.5%), 「낮다」(64.7%)였다. 또 역할보유와 다름없이 「보통」에서 「약간 낮다」

에 걸쳐 평균감각의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약간 높다」에서도 「5초 이하」(18.2%)의 구성비율은 높고 「보통」(23.3%), 「약간 낮다」(32.6%), 「낮다」(77.2%)로 일본에 비해 전체적으로 평균감각면에서 뒤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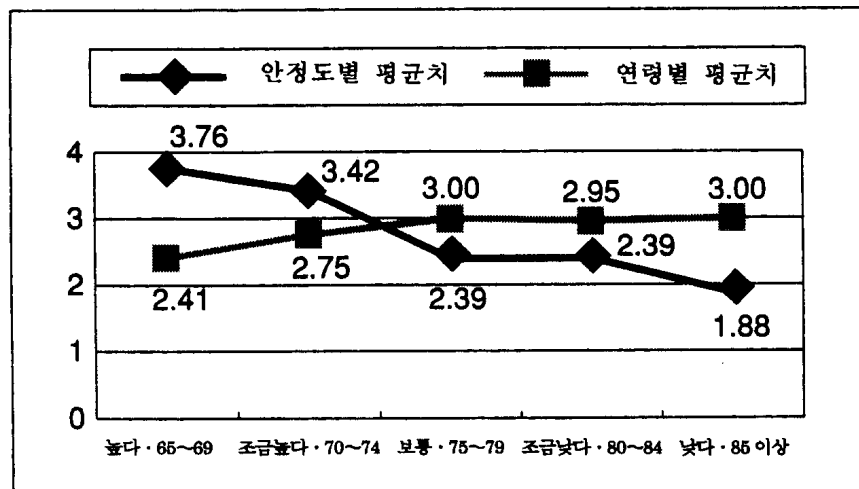
4. 분류별 생활 안정도 평균과 연령의 상관분석

(1) 항목별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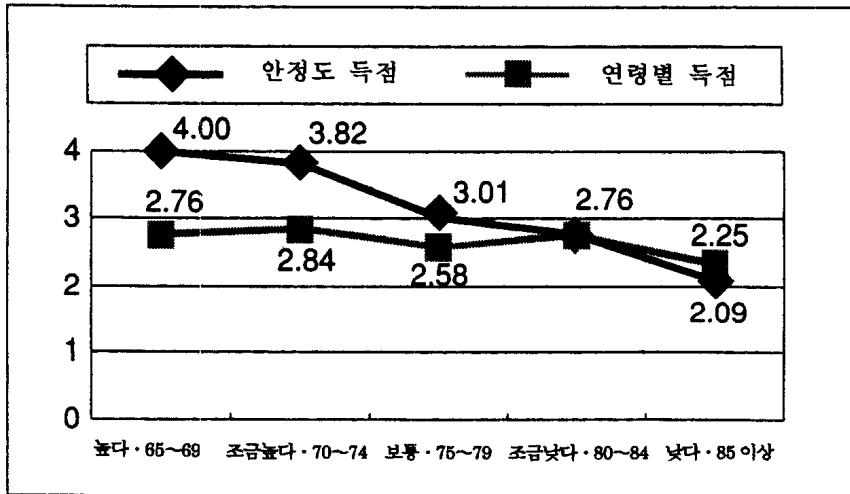
① 수면상황

일본의 경우는 안정도가 「높다」(3.76포인트)에서 「약간 높다」(3.42포인트)로 낙차는 적고, 「보통」(2.39포인트)로 조금 내려가 「약간 낮다」(2.39포인트)로 수준을 유지해 「낮다」(1.88포인트)였다. 연령에서는 「65~69세」부터 「74~79세」까지는 연령에 반비례해(0.29포인트) 상승하고, 그 이후는(3.0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안정도별로 본 경우 「높다」(4.00포인트), 「약간 높다」(3.82포인트), 「보통」(3.01포인트), 「약간 낮다」(2.76포인트), 「낮다」(2.09포인트)로 일본만큼 낙차는 적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2.76포인트), 「85세 이상」(2.25포인트)로 격차는 적다.



그래프 11 일본 수면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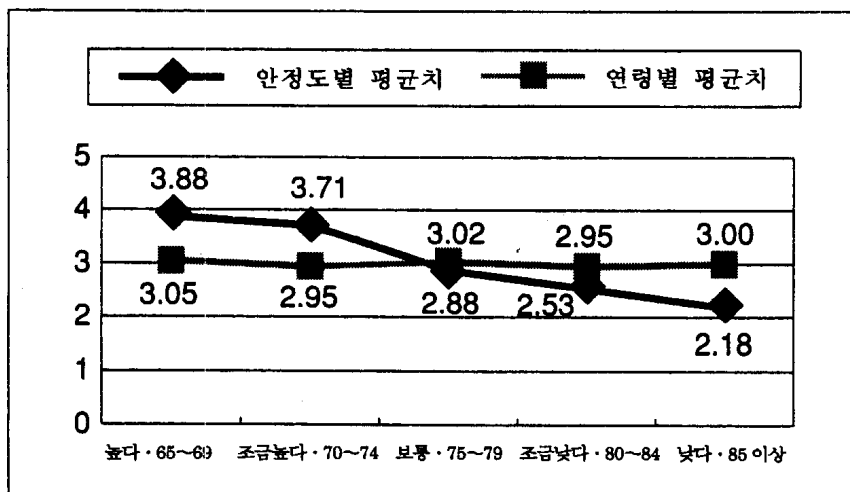


그래프 12 한국 수면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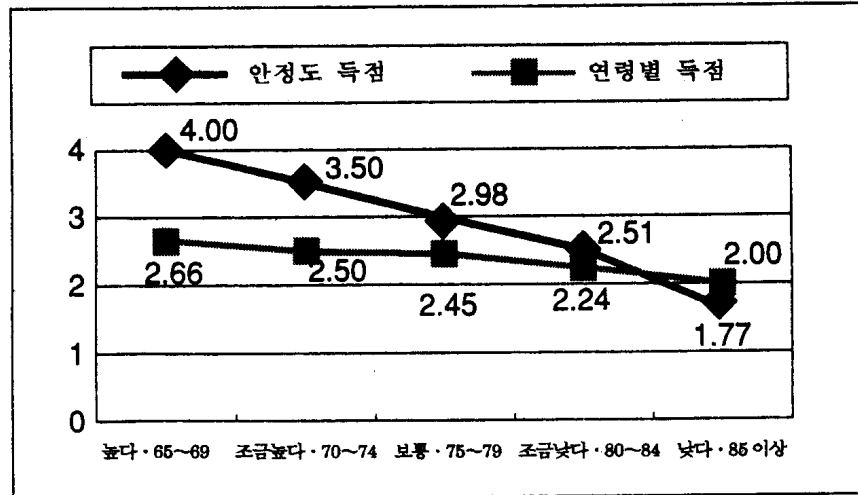
② 식욕의상황

일본에서는 안정도가 「높다」(3.88포인트)부터 「낮다」(2.18포인트)까지 격차가(1.7포인트)로 비교적 적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3.05포인트)부터 「85세 이상」(3.00포인트)로 전혀 연령에 의한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높다」(4.00포인트)부터 「낮다」(1.77포인트)로 거의 직선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고저차는 (2.23포인트)였다. 연령별로 본 경우는 「65~69세」(2.66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거의 연령적인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프 13 일본 식욕의 생활안정도별 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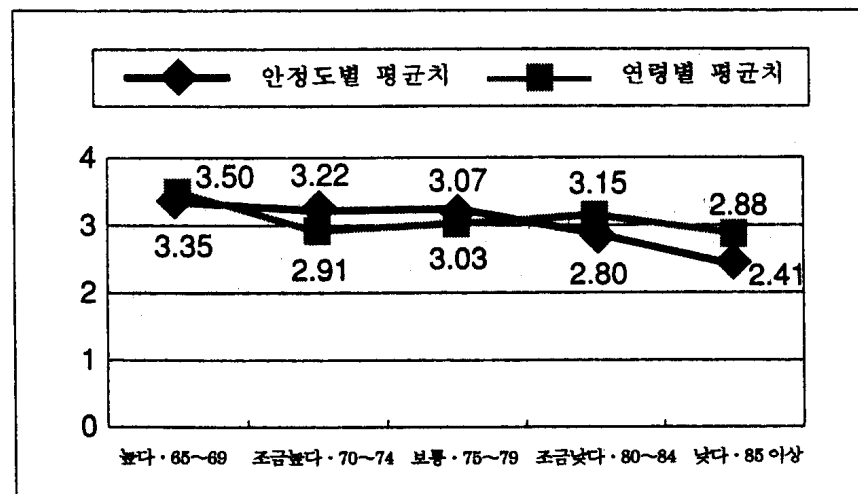


그래프 14 한국 식육의 생활안정도별 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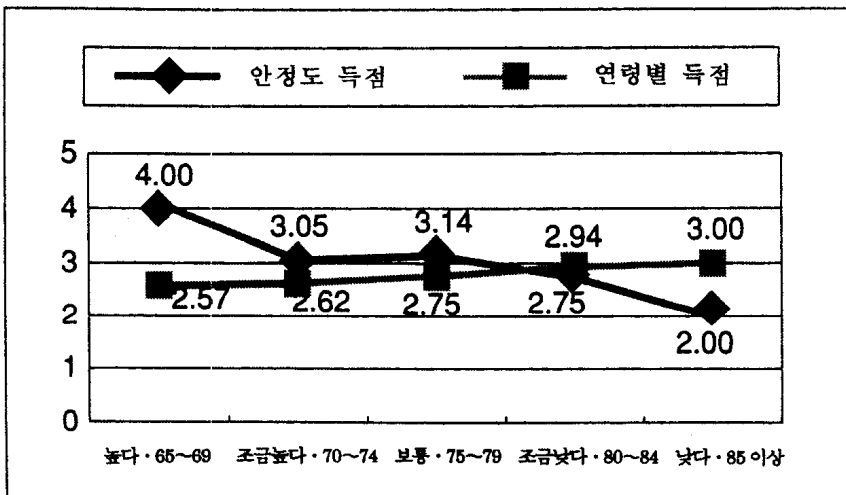
③ 교통수단

일본의 경우는 안정도가 「높다」(3.35포인트)이고 「낮다」(2.41포인트)로 낙차는 (0.94포인트)였다. 연령별에서는 「60~69세」(3.50포인트)부터 「낮다」(2.88포인트)까지 낙차는(0.62포인트)로 격차는 거의 없다.

한국의 경우는 안정도가 「높다」(4.00포인트)부터 「약간 높다」(3.05포인트)로 하락해, 그 후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여 「약간 낮다」(2.73포인트)에서 「낮다」(2.00포인트)로 하락하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2.57포인트)부터 「85세 이상」의 (3.00포인트)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연령이 높



그래프 15 일본 교통수단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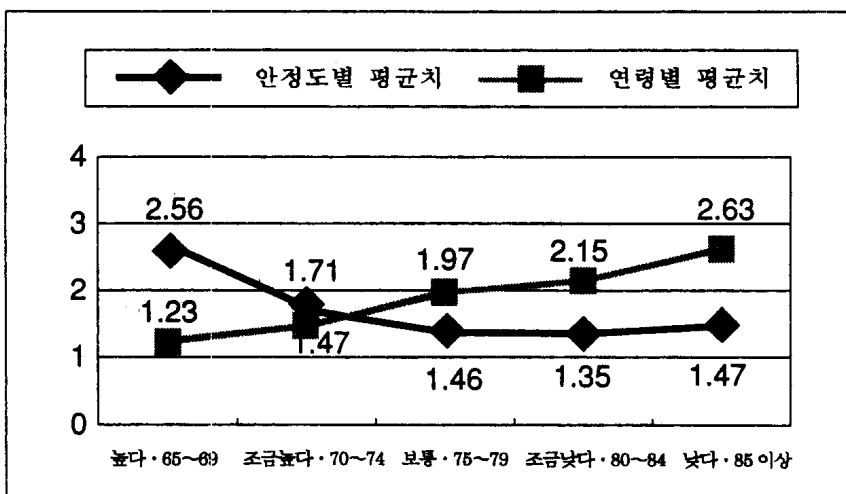


그래프 16 한국 교통수단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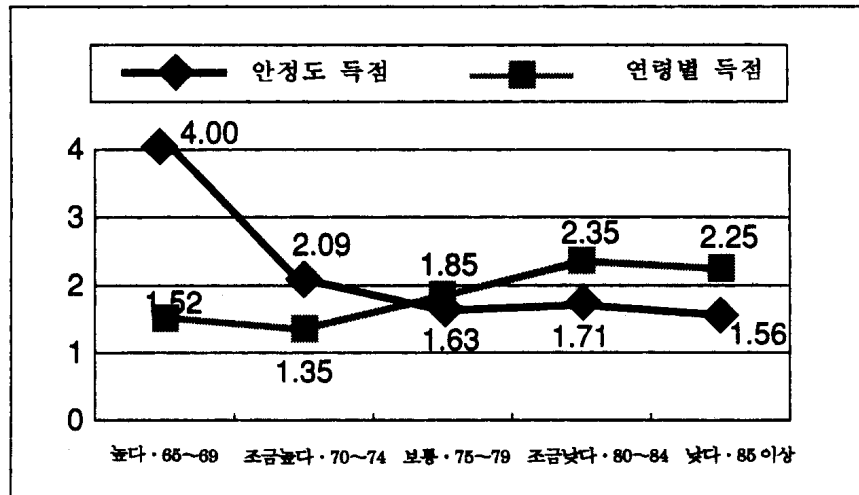
아짐에 따라 공공교통수단의 이용이 줄어들어 행동범위가 좁아져 도보에 의한 이동이 주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④ 희망수명

일본의 경우는 안정도가 「높다」(2.56포인트)부터 「약간 높다」(1.71포인트)의 격차가 (0.85포인트)로 낮아져, 그 이후는 「낮다」(1.47포인트)로 격차는 없다. 연령별에서는 현재의 연령에서부터 희망수명으로 되기 때문에 평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그래프 17 일본 평균수명의 생활안정도별 평균과 연령별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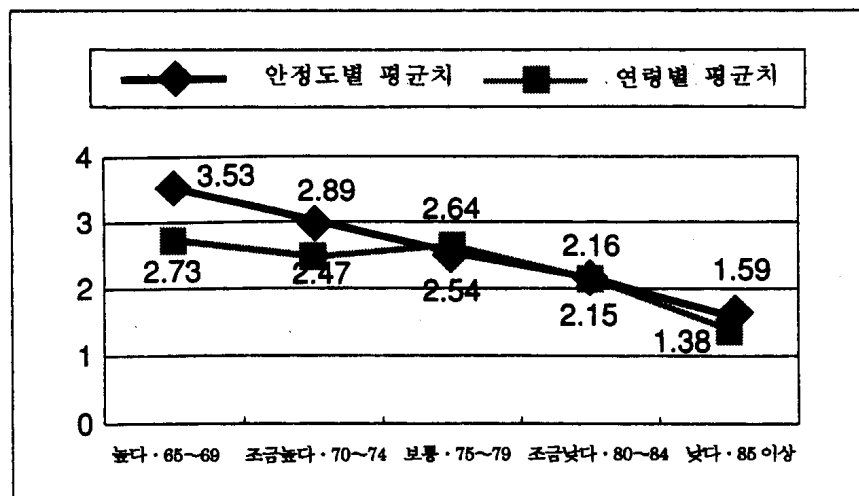


그래프 18 한국 평균수명의 생활안정도별 평균과 연령별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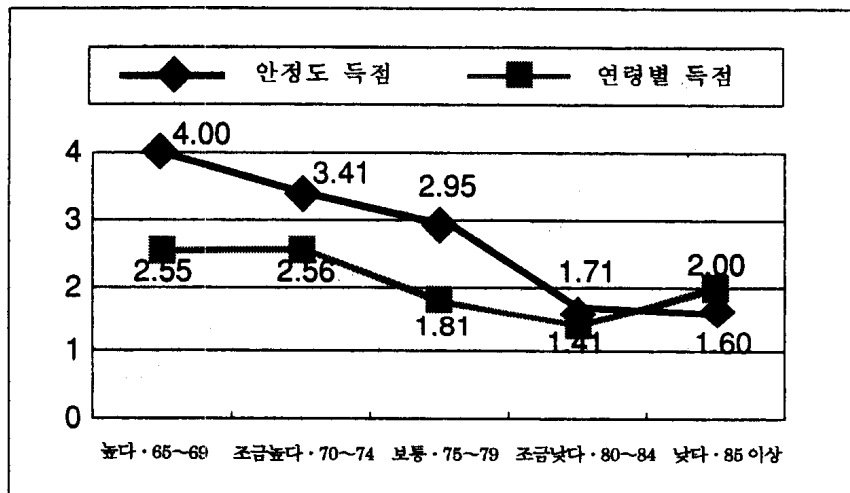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높다」에 대해서는 (4.00포인트)로 수준은 높다. 그후 「약간 낮다」(2.09포인트)이고 「낮다」(1.56포인트)까지의 격차는 적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1.52포인트)로 일본과 비교해 낮고 「85세 이상」은 (2.25포인트)였다.

⑤ 외출시의 불안

일본의 경우는 안정도가 「높다」의 평균치는(3.53포인트)에서부터 「낮다」(1.59포인트)까지 서서히 저하하고 있으나, 연령별에서는 「65~69세」군



그래프 19 일본 외출시 불안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그라프 20 한국 외출시 불안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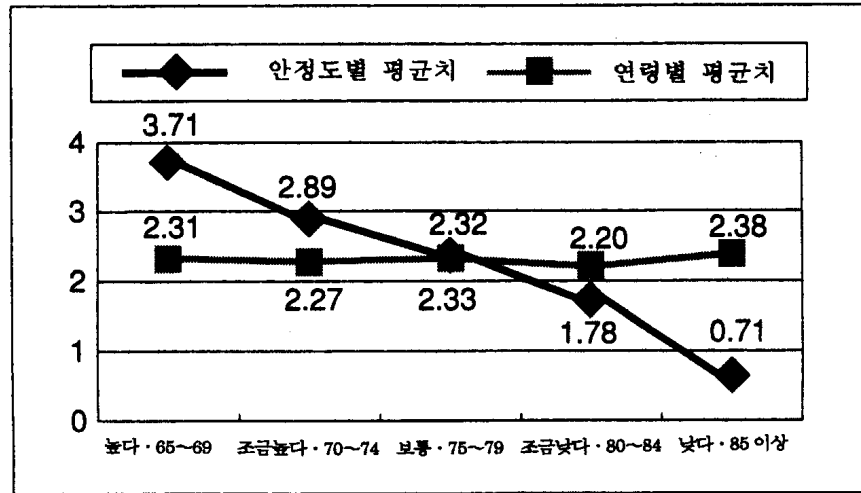
에서 「75~79세」군까지 고저차는 없다. 그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85세 이상」(1.38포인트)까지 낮아지고 있다. 또 75세 이상은 안정도와 연령에서 상관관계가 보인다.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높다」(4.00포인트)는 전혀 불안감이 없고 「약간 낮다」(1.71포인트)까지 (2.29포인트) 정도가 저하하고 있다. 그후 「낮다」는 (1.60포인트)로 변화가 없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2.55포인트)에서부터 「85세 이상」(2.00포인트)로 격차는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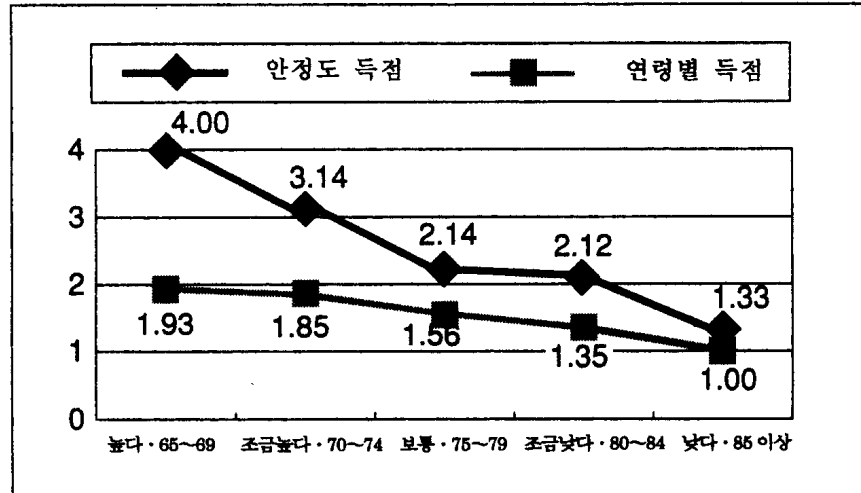
⑥ 주관적 건강도

일본의 경우 안정도가 「높다」군의 건강의식은 (3.71포인트)로 높고, 안정도의 저하에 비례하면서 「낮다」(0.71포인트)까지 3포인트로 격차가 항목별에서 본 경우 가장 크다. 반면 연령의 경우는 「65~69세」(2.31포인트)에서부터 「85세 이상」(2.38포인트)로 연령에 의한 격차는 보이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높다」(4.00포인트)이고 「낮다」(1.33포인트)까지 저하하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1.93포인트)로 일본에 비해 「85세 이상」에서는 (1.00포인트)에 머물렀다.



그래프 21 일본 주관적건강상태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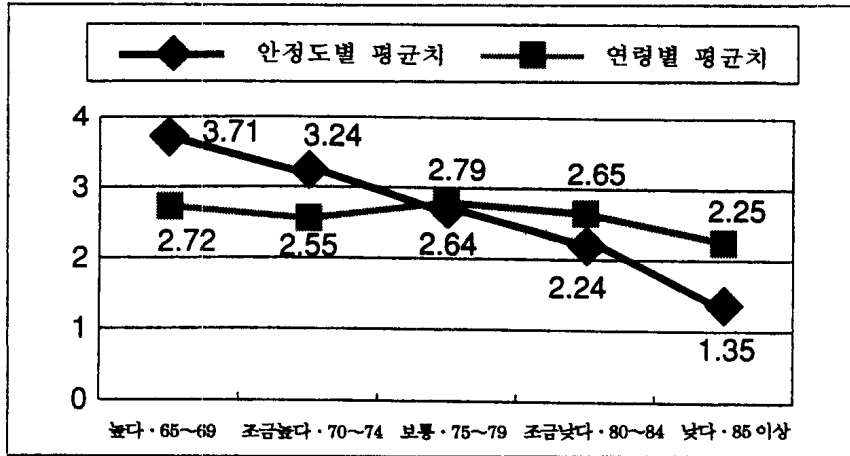
그래프 22 한국 주관적건강상태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평균비교

⑦ 운동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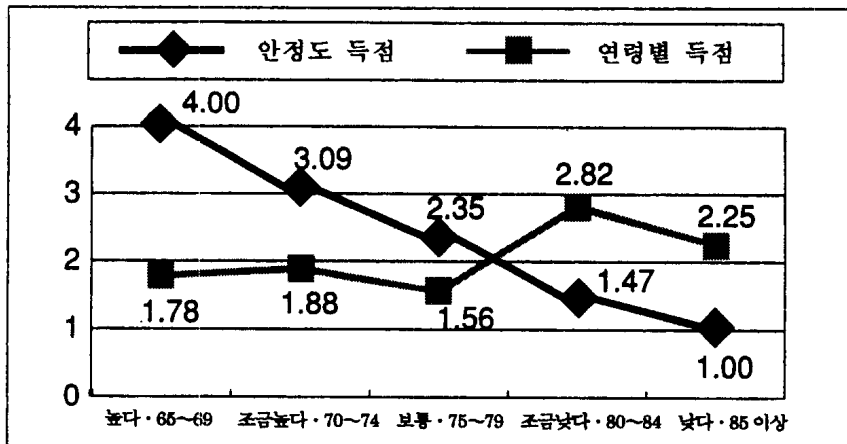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 안정도는 「높다」(3.71포인트)에서부터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낮다」(1.35포인트)로 하락하고 있다. 주관적 건강도와 관련성도 깊지만 주관적 건강도의 안정도가 「낮다」와 비교하면 약간 실천도가 높다. 연령으로 본 경우는 「65~69세」(2.72포인트)에서 「85세 이상」(2.25포인트)로 연령에 의한 격차는 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높다」(4.00포인트)에 비해 「낮다」(1.00포인트)까지 거의 직선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1.78포인트)

에서부터 「70~75세」(1.56포인트)까지 거의 변화가 없고 「약간 낮다」(2.82
포인트), 「낮다」에서 (2.25포인트)로 운동실천율이 높게 되어 있다.



그래프 23 일본 운동실천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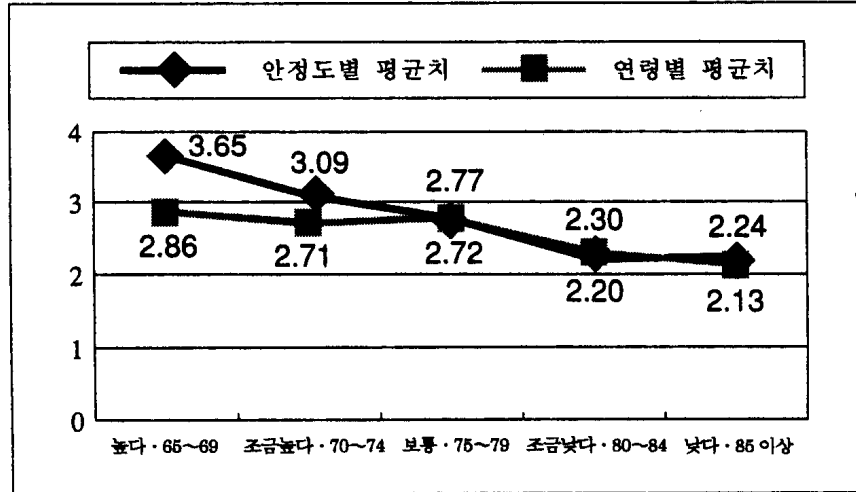
그래프 24 한국 운동실천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⑧ 스트레스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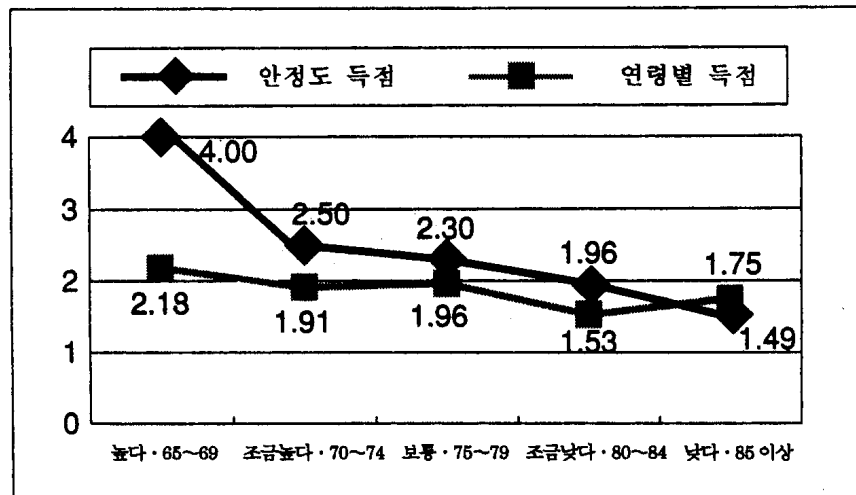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는 안정도가 「높다」(3.65포인트)에서 「낮다」(2.24포인트)고
온화한 하락선을 그리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2.86포인트)에서
「85세 이상」(2.13포인트)로 연령에 의한 격차는 거의 볼 수 없다.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높다」(4.00포인트)에서 「약간 높다」(2.50포인트)

까지 급속히 낮아져, 그후 「낮다」(1.49포인트)까지 서서히 저하하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2.18포인트)로 낮고 「85세 이상」(1.75포인트)로 연령에 의한 격차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프 25 일본 스트레스해소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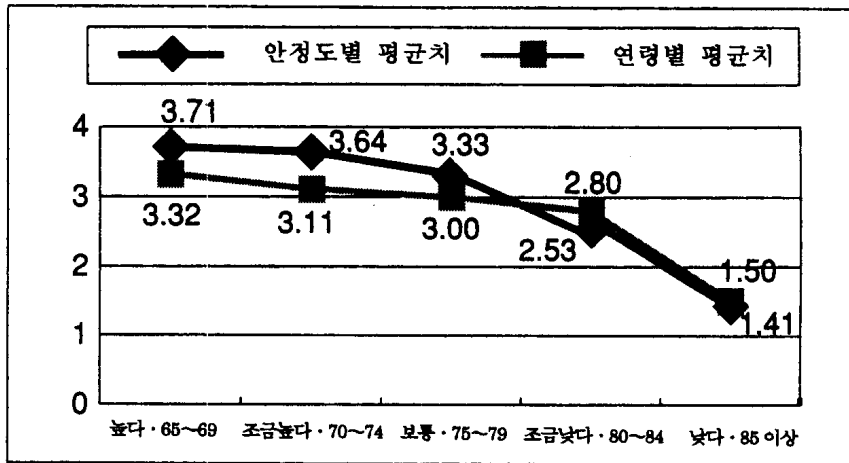
그래프 26 한국 스트레스해소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⑨ 역할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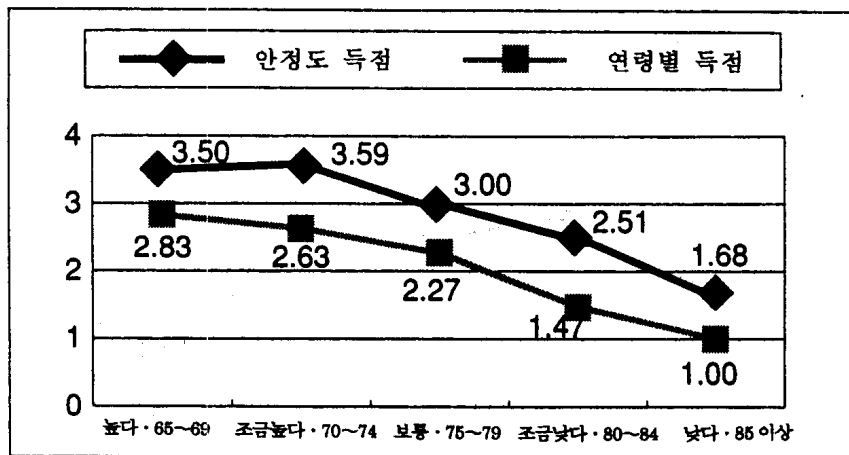
일본의 경우는 「외발서기」의 다음으로 상관지수가 높다. 「높다」(3.71포인트)에서 「보통」(3.33포인트)로 거의 격차는 없지만 「보통」에서 「낮다」(1.41포인트)에 걸쳐 (1.91포인트)로 급속히 역할보유율이 떨어졌다. 연령

에서는 「65~69세」군(3.32포인트)에서 「80~84세」군(2.80포인트)로 거의 연령에 의한 격차는 없지만, 「80~84세」군부터 「85세 이상」군의 사이에서 격차(1.30포인트)로 하락이 보여, 역할보유의 분기점이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높다」가 (3.50포인트)이고 「약간 높다」가 (3.59포인트)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그후 「낮다」(1.68포인트)까지 직선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령별에서는 「65~69세」(2.83포인트)에서부터 「85세 이상」(1.00포인트)까지 안정도와 비례하여 동일하게 저하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 27 일본 역할보유자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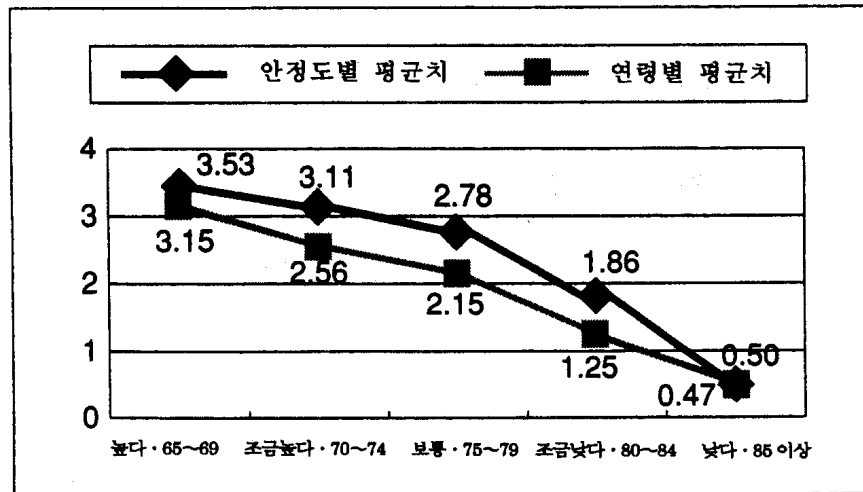


그래프 28 한국 역할보유자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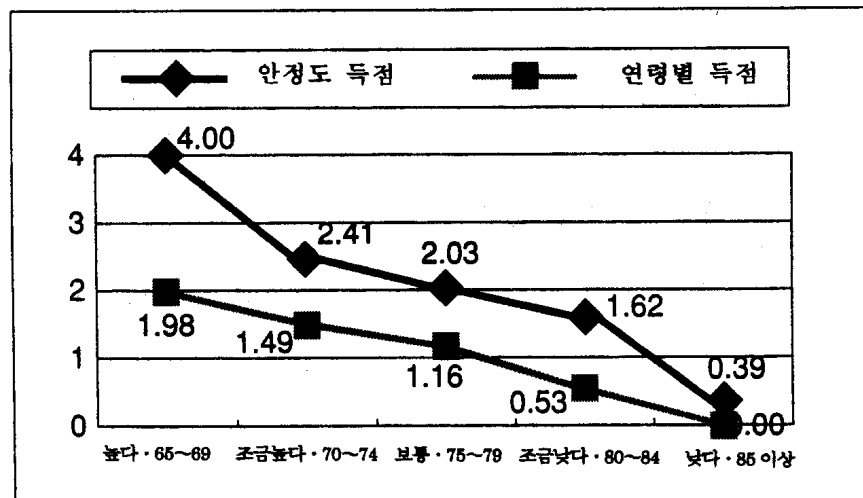
⑩ 외발서기

일본의 경우는 안정도가 「높다」(3.53포인트)부터 온화한 하락선을 그려 「낮다」(0.47포인트)까지 하락하여 격차가 크다. 연령에서도 동일하게 격차는 적으나 「65~69세」(3.15포인트)부터 「85세 이상」(1.50포인트)까지 하락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안정도가 「높다」(4.00포인트)에서 「낮다」(0.39포인트)로 고저차가 크고 연령별에서는 「65~69세」(1.98포인트)로 낮고, 「85세 이상」(0.00포인트)에서는 전혀 외발지지가 안 된다는 결과였다.



그래프 29 일본 외발서기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그래프 30 한국 외발서기의 생활안정도별평균과 연령별평균비교

(2) 상관분석에서 본 총괄

생활안정도 한일 상관계수 비교의 일본의 경우는 「역할보유」, 「외발서기」의 항목에 있어서 연령과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식욕」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고, 「역할보유」, 「외발서기」의 순으로 높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반면,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한일양국이 연령에 의한 격차가 적다는 것이 뚜렷히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고령자의 생활력(생활안정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본의 경우 신체발란스(평형감각)를 유지하는 것, 가정내외에 관계 없이 많은 역할을 보유하는 것이 고령자의 생활력(생활안정도)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최대의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경우 「식욕」을 유지하는 시점으로부터 본 경우, 의치 등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가능성이 높은 치료가 첫번째로 생각할 수 있다. 지역에 있어서 영양관리체제나, 병원, 진료소에 의한 의료체제의 충실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구체적으로는 식품 등 고령자용 부식의 개발이나 급식 서비스 등을 충실하게 함으로 의해서 바뀌는 항목이 적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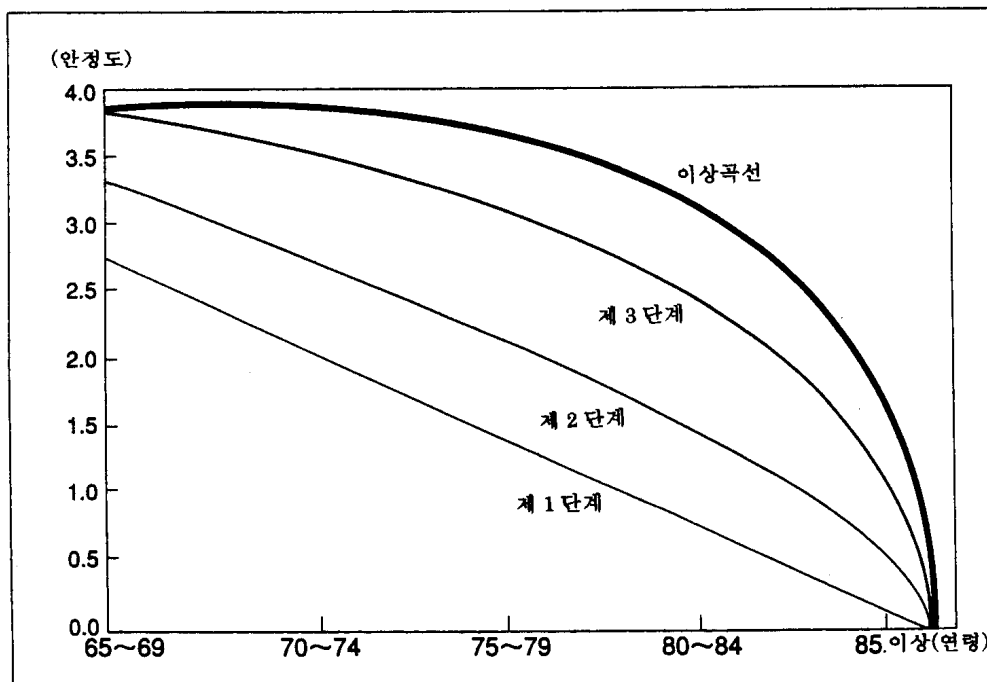
「외발서기」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에 있어서 연령을 더함에 의한 격차. 다시 말하자면, 연령에 의한 격차를 없애는 것이, 보다 더 고령기의 생활력유지가 가능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 일상생활에 있어서 「외발서기」 보유시간이 적어질 때 생활안정도도 저하하고, 생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외발서기」의 보유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서서히 저하하고 있는 경우, 가속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 등, 고령기의 신체적 발란스의 편중을 초기에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차도 고려해 일상생활에서의 외발서기 보유시간을 개개인이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번의 조사 연구에서 가령에 좌우되기 어려운 것으로 일본에서는 「수면」, 「식욕」, 「주관적 건강」, 한국에서는 「교통수단」이 가령에 의한 영향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금후 한일 양국에 있어서 일본의 「수면」, 「식욕」, 「주관적 건강」과 같이 연령

에 좌우되지 않는 항목을 늘리는 것이 안정도를 높이고, 한층 더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생활안정도를 시사하는 것으로(그래프31) 생활안정도 이상곡선을 생각 할 수 있다. 연령으로부터 오는 격차를 없애, 안정도로부터의 격차를 없애기 위한 연구가 이후의 연구과제이다.



그래프 31 생활안정도 이상곡선

【참고문헌】

미야모토 신이치「高齡化社會와 地域福祉 (1)」 히로시마 修大論集 제40권 2호
(인문편) 2000年

미야모토 신이치「우와지마시에서의 地域福祉의 現像과 課題」 에히메女子短期
大學紀要 1998年

모리나가 이키「홈헬퍼의業務와 專門化課題」 日本社會福祉學會 제46회 研究報
告概要集 1998年

히구치 게이코 편「介護가 變하면 老後도 變한다」 1997年

히구마 다케요시 등「히로시마현에서의高齡者福祉에 관한 研究(2)」 히로시마修
大論集 제35권 제2호(인문편) 1995年

히구치 게이코 편「地域에서 간호한다 모두가 간호한다」 미네루바 서방 1996年
韓國, 統計廳 「韓國의社會指標」 1998年

韓國, 保險福祉部 「保險福祉白書」 1998年

【협력기관】

한국 전라남도 영암군청, 광주일보사, 영암군재주 한일친구회의 여러분, 통역블
란티어(윤호전, 고은숙, 고숙은, 이주나, 김경미), 에히메여자단기대학 건강복지
코스학생, 히로시마슈도대학 인문학부 사회학 히구마연구실학생, 악시언의 무가
이미쯔오님